

# 종광대 토성, 후백제 최초 실물 유적

전주시정연구원, 『JRI 이슈브리프 제14호』 유물 산포지 최소 2개소... 가치 재조명·광역 협력 필요

현지 보존이 추진되는 종광대2구역에 후백제 최초의 실물 유적인 토성뿐 아니라 유물 산포지가 다수 산재해 후백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결정적 장소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22일 종광대 토성을 조명한 『JRI 이슈브리프 제1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08년 전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종광대 구역 사업부지 내 유물 산포지 2개소의 존재를 언급했다.

또한 해당 구역은 발굴조사 시 유적 확인 가능성이 높아 사업계획 조정 또는 장기간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능한 범위에서 현상 보존 방안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 1월 시작된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로, 사업부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발굴에서 그동안 일부 지도와 문헌에만 남아 있던 후백제 토성 성벽으로 해석 가능한 축성 구조(관축 등)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종광대 2구역에서는 기반층·외적층·관축층으로 이어지는 축성 양상이 확인되어, 종광대가 단순한 토루가 아니라 후백제 전주 도성의 외곽 방어체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실물 자료 부족'이라는 후백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현지 보존이 추진되는 종광대2구역 현장 사진

특히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이 백제(공주·부여·익산 세계유산)와 신라(경주 역사도시 정비), 가야(국가 주도 광역 프로젝트) 등 다른 문화권과 비교할 때 추진 속도, 국가정책 반영, 광역 협력 체계 구축 측면에서 보완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연구원은 종광대 토성의 보존·정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의 승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철희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종광대 토성은 후백제 왕도 전주를 실증하는 첫 실물 유적일 뿐 아니라, 전북 전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전북이 종광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정책의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구조적으로 뒤흔어진 역사문화권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19)

## 왜 그놈들을 죽였는지 아냐?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소대장은 노파를 쳐다봤다. "토벌대가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는 말을 했어요." "누가요?" "저 산사람들이요." 노파는 산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장경찰이 마을에 접근하려는 동향이 보이면 산에 은거하는 잔존세력들은 새벽에 깃발을 올리는데, 그걸 보고 마을에 남아 있던 잔존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날이 저물면 마을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알았소." 소대장은 선선히 공터에 모았던 노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소대장은 병력을 철수시켰다. 대신 정보를 아까 그 노파에게 보내 남자들이 주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를 물어 장소를 알아냈다.

다음날 새벽, 동이 뜨기 전에 소대장은 경찰과 남준을 포함한 학도대 병력을 집결시켜 노파에게 들은 정보대로 공음면 신대리 양성마을 부근 고갯마루에 매복시켰다. 동이 트자 신촌리 마을 쪽에서 남자들과 부녀자, 아이들이 보파리를 들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올라오는 길이 힘들어서 남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업거나 안고 있었다.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학도대는 일제히 총을 겨누고 일어섰다.

"뽐뽐 미!" 부랴부랴 올라오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남자들은 과하게 질렸고, 부녀자들은 오돌오돌 떨었으며 아이들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여자들에게 넘겨!" 남자들은 안거나 업고 있던 아이들을 모두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넘겼다. 남자들은 경찰들이 인솔해서 어디론가 데려갔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준을 비롯한 학도대가 무장지사로 끌고 갔다.

다음날 경찰들이 전날 끌고 간 남자들은 모두 산속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지사에 감금됐던 여자들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여자들은 즉시 산으로 가서 남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갔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왜 그놈들을 죽였는지 아냐? 그놈들이 내가 경찰관이라고 내 아내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복수를 한 것이다."

눈이 벌겍게 충혈된 경찰관 하나가 남준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과 학도대원들에게 씌어뻐뻐 말을 뱉어냈다.

남준은 그 경찰관의 말이 추악하거나 나쁘게 들리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남준도 저 경찰관처럼 남준의 부모와 동생들을 죽인 바대우 일행을 죽이고 싶었으니까.

51년 봄, 남준과 학도대원들은 무장면으로 출동하는 국군과 경찰을 지원하며 지냈다.

남준은 무장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좌익분자와 그를 동조하는 자들을 경찰이 사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해 5월 어느 날 새벽, 남준은 역시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를 출발하였다. 오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전북경찰국 소속 제18전투대대 3중대로 했다.

이 날도 무장면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남준이 학수고대하던 월림이 오늘 수색 대상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황전에 가서 박대우를 만날 수 있을까? 박정수나 박주성을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죽였던 자들도 만날 수 있을까?

남준이 학도대에 스스로 찾아가 가입한 이유는 바로 그자들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을 들었던 것 아닌가. 그 자들이 황전에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모두 산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남아 있더라도 한두 명만 마을에 있을 것이다. 부디 그들이 황전에 남아 있기를 바랐다.

봉전을 습격했던 날 모여 있던 황전 젊은 사람들은 많았다. 그들 모두가 산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날에 비해 손과 발이 가볍게 떨렸다. 소총을 파지하고 있는 손바닥에 땀이 나서 몇 번을 바지에 훔쳤다.

동이 틀 무렵 경찰과 학도대를 실은 트럭이 무장면 소재지에 도착하였다.



## 남원시, 춘향제 업무 인수인계 워크숍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 담당자와 새롭게 배치된 제96회 춘향제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과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22일 춘향제 업무 인수인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업무 전달을 넘어, 제96회 춘향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제96회 춘향제 주요 추진 경과 및 운영 성과 공유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 과제 분석 △축제 추진 시 유의 사항 및 실무 노하우 전수 △제96회 춘향제 추진 일정 및 역할 분담 논의 등이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 지정 문화유산 '천철석 소목장' 전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7월 19일까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천철석 소목장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나무의 결, 삶의 향기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 1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전통 소목 기법을 바탕으로 일상 속 목가구를 제작해 온 장인의 철학과 시간의 깊이를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소목장은 나무가 지닌 고유한 결을 살린 다양한 전통 가구를 통해 소목의 미학과 장인정신을 담아냈다.

느티나무, 오동나무, 참죽나무, 떡감나무, 홍송 등 여러 수종을 활용해 제작한 전통 가구 15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옷철로 마감된 작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지는 색감과 질감을 선사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애기장, 반닫



이, 사방탁자, 문갑 등이 있다. 천철석 소목장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생활 속에서 소목 가구의 의미와 쓰임을 새롭게 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속도 속에서 삶의 결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